

美 텍사스, AI 파운드리 격전지로… 삼성전자-TSMC ‘맞불’

삼성전자, 연내 美 텍사스주 테일러 1기 팹 가동, 2기 팹 착공
AI·HPC용 반도체 수주 확대 방침

TSMC, 델리스 지역 진출 검토
현실화 땀 생산능력 확보 경쟁

삼성전자와 TSMC의 인공지능(AI) 파운드리 경쟁이 미국 텍사스를 중심으로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현지 생산 능력을 늘려 AI 반도체 수주 확대에 나선 가운데 TSMC도 두 번째 미국 생산기지로 텍사스를 검토하면서 첨단공정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1기 팹을 올해 말에 가동하고 연내 2기 팹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2기 팹은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하며,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테일러 공장의 생산 능력을 늘려 AI·고성능컴퓨팅(HPC)용 반도체 수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파



삼성전자.

운드리 사업의 무게를 AI·HPC로 옮긴다. 전체 파운드리 매출에서 HPC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8%로, 사업부 출범 당시보다 크게 늘었다. 삼성전자는 2029년 이 비중이 6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객사도 현재 출범 당시의 약 3배에서 같은 기간 약 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는 AI·HPC 수요에 대응해 초미세공정 고도화에도 나선다. 2028년 3세대 2나노(nm·1nm=10억분의 1m) 공정을 양산한 뒤 이듬해 1.4나노로 전환해 첨단 공정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 가운데 TSMC도 텍사스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대만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TSMC는 애리조나에 이은 두 번째 미국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로고. /AP·뉴시스

생산기지 후보로 텍사스주 델리스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신규 생산기지에 첨단 웨이퍼 공장 6곳을 건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TSMC가 공식 투자 계획을 발표하거나 이사회에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TSMC의 텍사스 진출이 현실화하면 양사는 현지에서 첨단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테일러에도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TSMC까지 델리스에 생산기지를 추가할 경우 텍사스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TSMC의 미국 파운드리 투자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양사의 점유율 격차가 여전히 크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TSMC의 점유율은 72.5%로 삼성전자(5.9%)를 크게 앞섰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생산능력과 AI·HPC 고객을 늘려 점유율 격차를 좁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미정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상무는 지난 29일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워크 2026’에서 “2029년에는 HPC 고객사가 과반수가 되고 매출 구조에서도 HPC가 절반을 훨씬 넘어가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스마트폰 넘어 IT용 OLED 키우는 韓… 中 8세대 추격에 경쟁 격화

올해 스마트폰 OLED 비중 60.5%
삼성D, 8.6세대 OLED 양산 돌입
LGD, 게이밍 OLED 모니터 시장 공략
BOE·비전옥스, 8세대급 양산·투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을 넘어 노트북과 모니터 등 정보 기술(IT) 기기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올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출하량에서 OLED 비중이 처음으로 액정표시장치(LCD)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도 8세대급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경쟁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30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출하량에서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은 60.5%로 전망됐다. LCD 비중은 39.5%로



LGD디스플레이 '39인치 21:9 5K2K 게이밍 OLED'. /차현정 기자

OLED가 출하량 기준 처음으로 LCD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급형 스마트폰까지 OLED 채택이 늘어난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용 OLED 출하량 점유율도 올해 합산 57.3%로 지난해 53.8%보다 3.5%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위축은 부담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완제품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스마트폰용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출하량은 7억7800만장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지난 7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디스플레이 2026’에서 “칩플레이션” 영향으로 스마트폰과 IT 기기 물량이 줄면서 디스플레이 업계의 가격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내 업체들은 고부가 모바일과 IT용 OLED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애플이 이달 공개한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에 폴더블 OLED를 전망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분기 글로벌 폴더블 OLED 시장에서 삼

성디스플레이의 출하량 기준 점유율은 8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충남 아산 A6라인에서 8.6세대 IT OLED 양산에도 들어갔다. 2023년부터 4조1000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생산라인으로 노트북과 태블릿 등 중형 OLED 시장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LG디스플레이는 게이밍 OLED를 중심으로 모니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 21일 세계 최초로 24.5인치 720헤르츠(Hz) 게이밍 OLED 패널을 출시하며 24~25인치 e스포츠 영역까지 제품군을 넓혔다. 시장조사업체 시그마인텔은 글로벌 노트북 시장의 OLED 침투율이 올해 6%에서 2030년 19%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IT용 OLED 시장 확대가 예상되면서

중국 업체들도 생산능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BOE는 지난 6월 중국 청두에서 8.6세대 AMOLED 생산라인 양산에 들어갔고 비전옥스와 TCL CSOT도 8세대급 OLED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2028년에는 모바일·PC용 8.6세대 OLED 생산 능력에서 중국 업체들이 약 70%, 한국이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노트북과 태블릿 등에 쓰이는 8세대급 IT용 OLED 생산능력을 빠르게 늘리면서 향후 IT OLED 시장의 가격 경쟁도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업체들도 폴더블과 게이밍·IT OLED 등 고부가 제품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수출과 원가 경쟁력, 프리미엄 고객사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자산운용사 18곳 “의무공개매수제도 처리 보류해 달라”

지배주주 전량, 일반주주 일부 매각 시 일반주주 기업가치 부담·위험 떠안아

국내의 자산운용사들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앞두고 지배주주의 선행매수를 허용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지배주주가 보유 지분을 먼저 전량 매각한 뒤 일반주주에게는 일부 지분만 팔 기회를 주는 구조가 주주 간 매각 기회를 차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국내의 자산운용사 18곳은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란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10월 1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를 미루고 일반주주와 기관투자자,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이정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인 756개 기업의 평균 추가순자산비용(PBR)은 1.31배인 반면, 지배주주 지분율이 30%인 746개 기업의 평균 PBR은 2.94배로 나타났다”며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낮은 기업가치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공개매수 이후 일반주주가 계속 보유하게 될 잔여 지분의 가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일부 지분만 매각하게 된다면, 일반주주는 기업가치에 대한 부담과 위험을 계속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운용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이는 ‘선행매수’ 구조다. 정부위안에 따르면 인수자는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취득한 뒤, 50%+1주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나머지 물량을 공개매수할 수 있다. 일반주주들은 공개매수 물량을 나눠 매각해야 하는 반면, 지배

주주는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할 수 있어 주주 간 매각 기회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운용사들의 주장이다.

운용사들은 정부위안이 최근 강화된 일반주주 보호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정 스톱어십 코드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 관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배주주와 인수자 간 선행매수가 허용되면 기관투자자가 일반주주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 역시 이사회가 인수 제안을 주주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취지인 만큼,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지배주주와 직접 협상에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과는 제도적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 운용사 관계자는 “주주들이 향후 자신의 주식을 제값에 팔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져가고 일반주주는 일부 지분만 매각하는 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방



라이프자산운용, 레인메이커자산운용, 머스트자산운용,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VIP자산운용, 블랙쉬자산운용, 슬기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칸서스자산운용, 캄투자일임, 퀴드자산운용, 타이거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페트라자산운용, MY.ALPHA Management, Oasis Management 등 국내외 운용사 18곳이 30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안 처리를 보류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하은 기자

식으로 굳어진다면 주주들의 기대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며 “특히 경제선상에 있는 기업에서 대주주가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한 뒤 일반주주에게 충분한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사례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일본은 선행매수를 제한하는 사례로 거

론된다. 2026년 5월 시행된 개정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 후 지분율이 3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공개매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개매수에서 매수 희망 물량이 초과하면 안분비례 방식으로 배분하고, 취득 후 지분율이 3분의2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잔여주식 전부를 매수하도록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